

지하철역 도서관을 만들자

무료신문로부터 해방, 그리고 독서 회복을 위하여
현재의 지하철 문고와는 차원 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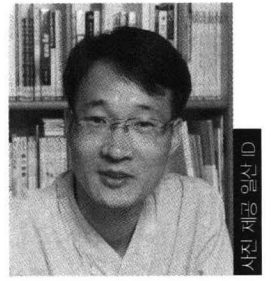


사진 제공: 일신 ID

글 한상수 아침독서추진본부장

출근 시간대에 지하철을 타면 절반 이상의 사람들은 무료신문을 보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잠자고 있거나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일상적인 풍경이다.

긍정·부정적 측면 존재

독서운동가의 입장에서 이는 긍정·부정적 측면이 함께 있다는 생각이 든다. 힘든 출근시간에 뭔가를 읽는 행위를 한다는 점은 일단 긍정적이다. 무엇을 읽는가까지 따지면 아쉽기는 하지만 글로 된 인쇄매체를 읽는 모습은 반갑기도 하고, 더 나은 읽기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내용이 자극적이고 깊이가 없기 때문에 읽는 이들의 지적 발달이나 지적 수준을 높이는 데는 거의 기여하지 못한다. 패스트푸드와 비슷하다고 할까. 자극적인 맛으로 유혹하는 패스트푸드 식습관으론 결코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없다. 웰빙 문화가 유행하는 현실에서 읽기 문화에도 웰빙 바람이 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렇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현상을 두고 개탄만 하는 것은 생산적이지도, 책임 있는 자세도 아니다. 지하철역 도서관은 그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지하철을 장악한 무료신문 현상은 사람들에게 읽을 거리를 쉽게 제공한다면 기꺼이 읽을 자세가 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현재는 지하철역마다 빈 공간이 상당히 많다. 일부 역에는 지하철문고라 하여 책장 몇 개에 기증받은 책들을 꽂아 두고 있지만 방치되고 있는 형편이다.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면 좋은 책보단 가져가도 무방한 책들만 놔두고 있는 것이다. 이곳에 필요한 시설과 읽고 싶은 욕구가 생길만한 책들을 비치, 운영한다면 자연스럽게 책을 보게 될 것이다. 지하철역 도서관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려면 전담 인력을 두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사서들을 고용하는 것이겠지만 당장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근로제도나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거나 문헌정보학과 대학생들을 활용한 인턴근무제도 가능할 것이다. 유희인력으로 존

재하는 고학력 노인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 듯 하다. 비치할 책은 예산을 세워 신간 중심으로 구입해야 한다. 이것이 당장 어렵다면 공공도서관에 있는 책들(신간 중심)을 대여해주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다.

지하철역 도서관이 활성화되면 지하철 풍경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이다. 시민들은 책보기를 싫어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원하는 책을 이용할 도서관이 너무 멀리 있는 것이 문제다. 관심 가는 책들을 모아놓은 작은 도서관이 지하철역에 있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다면 이보다 반가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좋은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주머니 사정이 만만치 않은데 보고 싶은 책을 일일이 사기란 쉽지 않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도 바쁜 현대인이 책을 사기 위해 서점에 가는 것도 역시 쉽지 않다. 인터넷 서점을 이용하는 것도 그렇다. 그래도 시민들은 요즘 많이 읽는다는 베스트셀러도 보고 싶고, 생활에 도움을 받을 만한 책도 보고 싶다. 생활에 치여 살다가 문득 '내가 이리다가 바보가 되는 것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 때도 있다. 이런 생활인들에게 출퇴근길에 편하게 들러 책을 빌려볼 수 있는 지하철역 도서관은 고마운 존재가 되지 않을까 싶다.

지하철역 도서관은 우리 사회 유희 공간과 인력을 활용하고,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적은 사회적 비용으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다. 이 제도의 성과에 대해 확신이 없다면 당장 한 곳이라도 시범적으로 실시해보자. 6개월 정도만 실시해보아도 평가가 나올 것으로 본다. 언제까지 책 안 읽는 사회 풍토를 개탄만 할 것인가? 좋은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때 사람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책과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제대로 운영되는 지하철역 도서관이 지하철역마다 만들어져 이용된다면 지하철 문화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상수**